

갈수록 심각해지는 광주 도심공동화

취학아동 '3분의 1'... 임대료는 '반토막'

서석·수창·중앙초교, 10년새 431명→144명

층금지하상가 4억6천만원... 7년만에 50%↓

한때 광주를 대표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했던 서석·수창·중앙초교 등 광주 옛 도심 명문초등학교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도심 공동화 가속화에 따른 신입생 부족 심화로 급속히 쇠락해 가고 있다.

지난 1896년 설립돼 올해로 개교 110주년을 맞는 서석초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광주의 대표적 명문교.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급 수가 학년당 20학급씩 120학급, 학생 수가 학년당 50~60명씩 6천~7천 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1990년 55학급에 2천596명으로 줄어들더니 1995년에는 35학급에 1천232명으로 학생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1990년대부터 광주지역 내 부상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도심인구가 대거 빠져나가 신입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현재 학년당 2~3학급씩 모두 16학급에, 학생 수도 학급 당 32~37명씩 490여명에 불과하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수준이다. 초·중등교육법 상 보건교사 배치 기준(18학급)을 충족하지 못해 보건교사

■최근 10년간 신입생 수 변동 추이

학교명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서석초	137	128	104	77	73	74	70
중앙초	160	105	72	55	43	30	30
수창초	134	123	115	88	56	55	44

(출처:광주시교육청)

가 아예 없다.

1996년 137명이던 신입생 수도 2006년 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도 7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945년 개교한 중앙초교의 경우 쇠락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1990년 64학급, 3천2명에서 1995년 34학급, 1천150명으로 급감하다가 2006년에는 겨우 9학급, 229명에 그치고 있다. 올 취학아동 수는 30명으로 1996년 160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921년 개교한 수창초교도 1990년 61학급, 2천805명에서 1995년 35학급, 1천232명으로 줄더니 2006년 14학급 40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취학아동 수도 1990년 134명에서 2007년 44명으로 크게 줄었다.

/행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도심 상권의 위축은 층금지하상가 소유권을 가진 광주시의 임대 수입을 수년 만에 반 토막 냈다. 도심주차장의 대명사였던 황금주차장도 공동화 바람에 밀려나고 있다.

2월 광주시에 따르면 2006년 층금지하상가(124개 점포) 임대 총수입은 4억6천여만원. 7년전인 지난 1999년 9억3천만원에 비해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다.

층금지하상가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시의 짝퉁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줄어드는 임대수입으로 인해 광주시는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된 구조조정을 검토중이다.

층금지하상가 임대료가 처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0년. 상인들이 부동산 개발과 할인점의 무차별 진출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들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평균 14%의 임대료를 인하했고 임대수입은 9억3천만에서 8억원으로 떨어졌다. 하락 행렬은 이어졌다. 2003년에는 6억4천만원, 2005년 5억으로 격감했다.

시는 2005년 말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심상

■층금지하상가 연도별 임대료 추이



권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또 임대료를 12% 인하, 수입액이 4억6천만원으로 추락했다. 7년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한때 광주의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한 호황을 누렸던 황금주차장도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301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황금주차장(지하 2층·지상 6층)은 IMF 파고도 잘 넘겨 2000년 전후까지도 10억원에 가까운 주차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2002년 한해 주차수입금이 9억원(26만6천대 주차)이던 것이 2003년 7억7천700만원(23만대), 2004년 6억2천만원(18만4천대), 2005년 5억5천100만원(16만3천대)로 감소했다.

광주시는 황금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모두가 힘 모아” 전남체신청 직원들은 2일 오전 광주시 서구청 청사 로비에서 ‘열정과 창조로 고객과 함께 하는 전남체신청’을 표한 3만여 조각의 도미노 쌓기 행사를 열었다. /N명중기자 mjna@kwangju.co.kr

반기문 유엔총장 “여수엑스포 지지”

여수시장에 서한 보내

새해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오현섭 여수시장 앞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원하는 서한(사진)을 보내 박람회 유치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반 총장은 서한에서 “세계적 행사인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수시민, 유치위원들께서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전력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디 여수에서 시작된 세계박람회 유치 열원의 열정이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결실을 맺어 2012년 아름다운 여수에서 세계박람회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위상과 권위를 심분 활용, 다각도로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與, 全大준비위 출범

위원장에 원혜영 사무총장

열린우리당은 새해 업무 개시일인 2일 통합신당 추진의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내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의제와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대준비위원회 구성안과 중앙당 선관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전대준비위는 위원장인 원혜영 사

무총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당 사수파 쪽에서는 김태년 이원영 윤호중 의원 등 3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대준비위는 오는 3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전대 의제와 지도부 구성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계파간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20일까지 중요한 전대 의제와 지도부 구성 안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대한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 사수파는 3일 오찬모임을 갖고 “지도부 구성 권한은 당원에게 있으며 의원들에 의한 합의추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대준비위 내에서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논리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후원대학 장학금 50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최경주·선동열·조정래·김용택 서남해안 개발 ‘힘 보탠다’

서남해안포럼 후원

전남의 지도를 바꿀 대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남해안 개발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스포츠 스타들과 종교계·문화계 인사들이 후원팀을 구성하고 나섰다. 스포츠 스타인 프로 골퍼 최경주, 삼성라이온즈 감독인 선동열

씨를 비롯,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태백산맥’의 소설가 조정래씨 등이 ‘서남해안 포럼’의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남해안포럼은 오는 18일자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포럼 상임대표로 선임했다. <인터뷰 5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11가지 생약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쿨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최수호 김동원